

# 최경환 “설 이전 중도통합 노력”

### 문희상 의장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여와 야가 없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최경환 신임 대안신당 대표는 13일 “저희들이 통합을 잘 해서 의장이 간편하게 일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의장께서 일하시기 복잡하셨다. 언론에서 저희를 5당이라고 하는데, 4당이 새보수당, 그다음에 정의당, 평화당, 한석 차이”

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창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대안신당이 본격적인 중도개혁 세력 통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의장은 “불과불립(不破不立)이라는 말이 있다”며 “깨뜨리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말도 있다. 지역도 다르고, 소득분배도 다르고 다 다르다”며 “그런데 말과

논리로 싸워야 한다. 다 다른데 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와 지구, 이런 차원에서 하나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와 문 의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억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곁을 지킨 ‘마지막비서관’이다.

최 대표는 “20대 국회에 들어와보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안목이나 식견이 얼마나 컸는지 참 느껴진다”고 말했고, 문 의장은 “더더욱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와 야가 없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비공개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 김 전 대통령을 모셨을 때와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며 “의장께서 김 전 대통령께 많이 배웠으니 잘 하라고 하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대안신당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신 계열의 본류가 아니냐고 그런 정신을 잘 이어가면 좋겠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설 이전에 (통합) 목표를 갖고 노력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 이후 이제 뭉칠 때가 됐다”는 모임과 전화통화 등이 비일비재했다”며 “원탁회의처럼 공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박지원 “추미애·윤석열 만나 풀고 나가야”

### “검찰 인사 이 정도 예상 못해”

### “안철수 바른미래에 등지 틀 것”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진짜 너무 세계 (인사들) 했더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세계 하리라고 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남아있는 검찰 후속 인사에 대해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한 발씩 물러서서 국민을 보고 또 문재인 정부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분 다 임명하신 분들이면 (들이) 만나 협의해서 풀고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귀국이 임박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변수가 많

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등지를 틀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다만 바른미래당으로 가면 돈이 100억원이 있고 20명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기득권도 누리고 또 총선 때 20명 가지고 국고 보조를 받아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진영의 통합 추진에 대해선 비판론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 추진은 어려우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1

# 김대중대통령 3남 김홍걸 “이번 총선에 반드시 나간다”

### “힘지든, 쉬운 곳이든 상관無”

### 민주, 광주 동남갑·목포 등 고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13일 광주를 찾아 4·15 총선에 대한 출마의지를 확고히 했다.

전날 광주 문성고에서 열린 서정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의 출판기념회 참석차 지역을 방문한 김 의장은 13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 나간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힘지든, 쉬운 곳이든 상관없다. 당이 원하는 곳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총선 출마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 등의 문제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포함, 몇몇 선거구에서 출마설이 나돌았으나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 입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광소 지역 정치행사에 모습을 잘 비추지 않았던 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료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광주 동남갑 총선 출마를 밝힌 서정성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까지 한 것도 흥미롭다.

민주당은 최근 김홍걸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고양시정(일산서구)을 비롯 지난해 광주 동남을과 목포지역에서도 경쟁력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돌리는 등 김 의장에 대한 공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민화협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 역할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이제는 통일외교전문가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란 관계로 인해 중국, 일본 등의 고위



김홍걸

급들과 연결이 된다. 저를 잘 활용하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국회에 진출해 남북관계에서 진전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7년 대선때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의 호남지지 반대에 공을 세운 이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역정가에서는 현재 수도권보다는 호남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김 의장은 광주·전남 어느 곳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는 목포보다는 여당 현역 의원이 다수 공석인 광주가 출마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뉴스1

# 진중권 “정봉주, 나오면 너부터 제거 100% 보증”

### 조국 사태 이후 범진보진영 향해 연일 직격탄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가 13일 서울 강서갑 총선 출마를 시사한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 “(선거에) 나오시는 순간 너부터 즉시 제거시켜 드리겠다”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의 총선 출마 관련 기사를 링크한 후 이렇게 썼다.

진 전 교수는 이어 “100% 보증한다”고 자신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시글에서 “K선거구의 K후보에게 도전할 듯!”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밝힌 곳은 같은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분회의 표결 당시 당론과 달리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져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조국 사태 이후 진 전 교수는 그동안 한 술밥을 먹던 범진보진영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는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